오늘의 게시판

제16회 여성경제인포럼 오후 6시 광주 무등파크호텔

〈17일〉

행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제 16회 여성경제인포럼=오후 6시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이기권 광주지방노동청장이 강사로 나서 '2006년 노동정책 방향'에 관해 강연. 062-527-1612

▲제 62회 지리산 남악제=23일까지 구례군 화엄사 상가지구 및 서시천 체육공원 일대. 산수유차·술 시음회. 야생화압화·잠자리 자연생태체험 및 농특산품 판매전. 약수 시음회. 전국 남녀 궁도대회 등 개최.

▲전통규방 공예교육=오전 10시 나주시 구 농업기술센터.

〈18일〉

▲덕림-이룡간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오후 2시 나주시 노안면 덕림리 마을회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관련 심포지엄 개최=오후 2시 나주문화예술회관.

공연

▲이치현과 벗님들 아름다운 콘서트=오후 7시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지체장애인 돕기 위한 콘서트로 R석 3만원·일반석 2만원.

▲제 16회 하나 된 소리=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엄일섭·민호기·강상수·김재미·김창호 등 출연, 소망의 바다·중창·연주·수화중창 외 공연.

▲이우광 바슨 독주회=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이우광·김창현·송희경·류영아 등 출연, 비발디 바슨 협주곡·첼로·바슨을 위한 협주곡 등 연주.

▲모나무르 실내악단 연주회=18일(화)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이형석·클레브·제렙·뽀스켄·이진경 등 출연, 텔레만의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협주곡·비발디 사계 등 연주.

▲제 36회 창작 가곡발표회=18일(화)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정애련·김준석·김정덕·정유하 등이 출연, 가끔씩 그대 마음 흔들릴 때는·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등.

전시

▲광주시립미술관 미술단체 초대전 '남도 문인화의 정신을 찾아서'= 23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광주·전남 문인화협회 소속 중견 작가 30명을 엄선했다. 모두 60여점의 근작을 선보인다.

▲서양화가 박수만씨 창작지원전=19일까지 광주 롯데화랑. 박씨는 '미(迷)·인(人)·도(道)'를 주제로 우화적이고 만화적 감성을 자아내는 작품을 선보인다.

▲인도세밀화전=5월7일까지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보성군 대원사 티벳 박물관이 소장한 인도 세밀화 50점을 빌려 전시한다. 인도 민속용품도 전시된다.

▲최쌍중 서양화전=23일까지 신세계갤러리. ㈜광주신세계 창립 11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지난해 12월 작고한 서양화가 최쌍중씨의 유화 23점이 전시된다.

▲강요배 개인전=25일까지 남봉갤러리. 제주 민중항쟁사를 주제로 연작을 발표하고 제주의 자연을 서정적으로 표현해온 강요배씨가 '땅에 스민 시간'을 주제로 서양화 39점을 전시한다.

▲난설 황정숙 서전=다음달 5일까지 금남로 4가 지하철역 메트로 갤러리. 예서와 행초서는 물론 전서, 초서, 해서, 한글 등 서체 전 부문에 걸친 65점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그림속 동물 읽기'전=8월20일까지 시립미술관, 하정웅 명예관장이 기증한 작품 중 동물이 등장하는 작품 45점 전시 062-525-0968

역사속의 오늘

▲조선총독부, 토지수용령 공포(1911)

▲시인 이상 세상 떠남(1937)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세상 떠남(1953)

▲전국대학생총연합회(전대협) 결성(1985)

▲TV 과외방송 실시(1989)

▲광주시, 5·18정신 계승 위한 기념재단에 10억원 출연(1996)

▲대법, 전두환·노태우에게 최종 선고, 형 확정(1997)

뉴스퀴즈

8. 최근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히 손상된 것으로 판명, 독일 월드컵 본선 출전이 좌절되면서 한국축구 대표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라이언 킹'으로 불리는 축구 대표팀의 간판 스트라이커인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최용수 ② 조재진
③ 이동국 ④ 안정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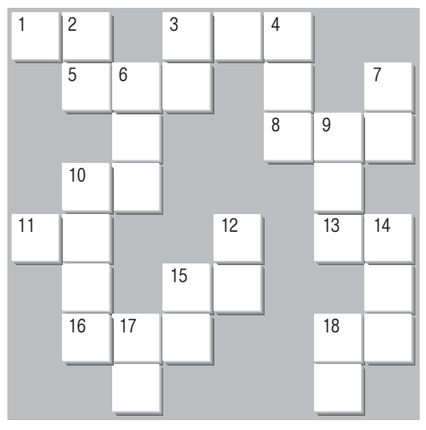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함께 풀어봅시다 < 197 >



→ 가로풀이

1.책을 지음. 또는 그 책. 그 소설가는 20여권의 ~를 남겼다. 3.지능이 낮은 듯하고 단순한 표정을 지닌 사람이 풍기는 아름다움. 5.어떤 일에 일정한 시간의 한계를 둠. ~ 인생. 8.경영주가 같거나 사업 계통이 같아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그 회사는 현대그룹의 ~이다. 10.용언 또는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품사. 11.일을 확실하게 정함. 시험일자가 아직 ~ 되지 않았다. 13.사람에게 길이 들지 않은 야생의 사나운 짐승. 또는 몹시 거칠고 사나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5.계약에 의해 저작물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판권 소유자인 저작자에게 저작물이 팔리는 수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치르는 돈. 16.일이나 사물의 가치를 다시 들추어 살펴봄. 조선후기 평민 시조 작가에 대한 ~ 작업이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8.서양식 음식.

↓ 세로풀이

2.책의 첫머리에 서문 대신 쓴 시. 또는 긴 시에서 머리말 구실을 하는 부분.→머리시. 3.큰아버지 4.얼굴이 아름다운 여인을 이용해 사람을 꾀는 계략. 6.한의학을 전공한 의사. 7.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 입사시험을 치는 사람들은 ~ 문제도 잘 알아야 한다. 9.방 밖의 온도가 25℃ 이상인 무더운 밤. 10.올바르지 않은 수단과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일. 12.바람이나 경축,환호 등을 나타내기 위해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외치는 소리. 대한독립 ~. 14.다른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손의 힘만으로 움직여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방식. 또는 그런 것. 15.사람의 목숨. ~을 구조하다. 17.할머니. 18.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그는 그 일로 ~의 가책을 받고 있다.

하	야		천	연	두	점
	영		동		문	맹	자
	장	광	설		불	
		복			출	퇴	근
	정	절				거
	체			대		허	리
가	불		우	변		드
	명	왕	성		수	레

〈함께 풀어봅시다 196회 정답〉

▲지난주 당첨자

이지인·광주시 남구 진월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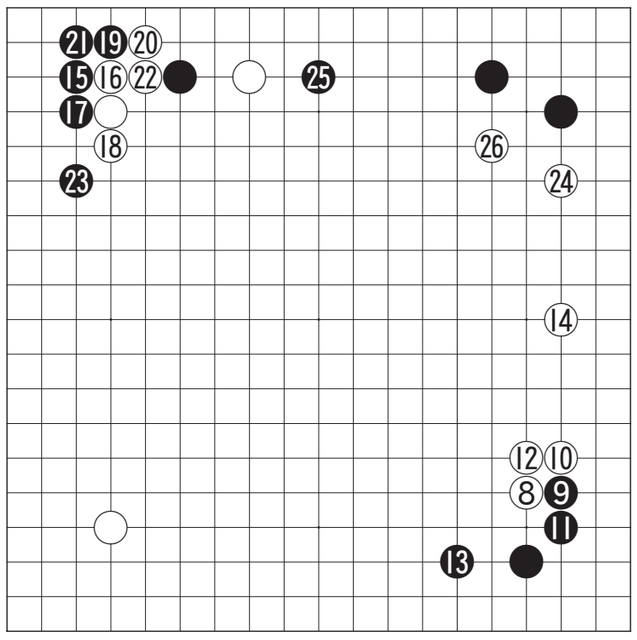
박승자·광주시 서구 농성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회 2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바둑소식



2005 바둑미스터스 삼국지

"모범포석" 결승전 제 2보(8~26)

白 이 창 호 (9단) 〈엠게임〉 黑 조 한 승 (8단) 〈타이젬〉

이창호 9단은 올해 최철한 9단에게 국수를 탈환하고 원익배 10단전에서 박영훈 9단을 물리치고 첫우승을 차지하는 등 국내 기전에서는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제10회 삼성화재배 결승에서 중국의 뤄시허 9단에게 충격의 패배를 당한데 이어 그동안 6연속 우승의 금자탑을 쌓았던 농심신라면배 단체전에서도 일본의 요다 노리모토 9단에게 패배, 우승컵을 일본에게 내줘 이 9단의 신화가 막을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9단이 슬럼프 기미를 보이자 바둑계 일각에서 이 9단을 안정시키려면 결혼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대두되고 있어 이 9단에 대한 바둑계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이 9단은 속기전을 비롯 대국에서 흑번에 강하다는 것이 정평이다.

흑 9부터 백 24까지는 물이 흐르는 듯 유연하여 이창호 9단의 바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범포석이다. 흑 25는 왼쪽 흑 한 점의 준동을 엿보는 적극책이며 백 26이 절호점이다.

〈오규철 9단·본지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조혜연·이세돌 왕중왕전 16강

조혜연 7단이 최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32강전에서 이상훈 9단에게 289수 끝에 흑 3집반 승을 거뒀다.

이세돌 9단과 정수현 9단의 대국에서는 이 9단이 204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두고 16강행 막차를 탔다.

조 7단은 16강전에서 김진우 2단과 맞붙고, 이 9단은 최규병 9단과 격돌한다. 총 상금 규모 5억2천500만원인 전자랜드배 우승상금은 4천만원이다. 제한시간은 각 10분, 초읽기 40초 3회가 주어지며, 결승전은 3번기로 진행된다. 우승 시 2단, 준우승 시 1단의 승단 혜택이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7일(음 3월 20일 丙子)

子 36년생 강물이 순류하니 편안한 하루다. 48년생 직장에서 신중하게 처신하고 가정에서 화목 하라. 60년생 튼튼한 제방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다. 72년생 지출을 가장과 의논하라. 84년생 자신을 낮춰라. 행운의 숫자 : 22.35

丑 37년생 협력자를 만나서 도움을 받는다. 49년생 집안의 평화는 참아야 한다. 61년생 근자에 만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니 선택을 잘 하라. 73년생 이웃을 살펴보라. 85년생 이성 보다 친구 만나기 좋은 날이다. 행운의 숫자 : 02.26

寅 38년생 욕심을 내지 마라 좋은 날이다. 50년생 여러 가지 고통이 나타날 수 있으니 분수를 지켜야. 62년생 어려움은 없으나 친인척의 변동으로 걱정이 생긴다. 74년생 뜻밖의 환심은 조심음모가 있으니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10.27

卯 39년생 가정과 마음의 중중한 고통이 있을 수 있다. 51년생 주변의 기만과 허황된 문서를 조심하면 대손은 없다. 63년생 부부간의 이해 있는 대화와 자녀를 살펴보라. 75년생 어려움은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되리라. 행운의 숫자 : 04.45

辰 40년생 믿는 도끼도 세심하게 살펴보라. 52년생 합자, 동업, 신규투자는 深思熟考후 결정하라. 64년생 건강이 수상하니 검진을 받아보라. 76년생 친구가 다시 도와주고 새 문서를 잡고 가내는 경사로다. 행운의 숫자 : 08.33

巳 41년생 겉으로만 어려울 뿐 행동하면 쉬우리라. 53년생 사랑은 있으나 만날 수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로다. 65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내실 있게 득리한다. 77년생 겉은 화려하나 속내는 虛하니 실속 있게 처신하라. 행운의 숫자 : 05.25

午 42년생 옛 일이 괴로우니 다시 한번 살펴보라. 54년생 가정이 소란하니 조용히 해결하라. 66년생 처음에는 당황하나 흉이 복으로 변하는 형상이다. 78년생 허황된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으니 현실로 돌아오라. 행운의 숫자 : 13.26

未 43년생 미움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사랑으로 보내라. 55년생 해묵은 일은 먼지처럼 날리고 화해하며 지내라. 67년생 다툼으로 미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고 또 신중 하라. 79년생 연인과 접속이 된다. 행운의 숫자 : 06.37

申 44년생 겉으로는 싫어하나 속으로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 56년생 자신과 가정, 직장사이에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68년생 보금자리를 매만져라 사랑이 보인다. 80년생 오늘은 밖에서 자동차를 조심하라 . 행운의 숫자 : 19.29

酉 45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고 협조자가 달려온다. 57년생 우두머리가 둘이니 선택을 잘하라. 69년생 의외의 得財와 집안의 안정이 있다. 81년생 독신자는 새로운 연인을 만날 기회가 생기니 준비하고 기다리라. 행운의 숫자 : 07.40

戌 46년생 자녀와 떨어져 살아야 할 경우가 생기지만 좋은 일이다. 58년생 오늘 하루는 외근보다는 내근을 하라. 70년생 진행하던 일이 순조롭게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 82년생 눈을 조금만 낮춰서 현실을 보라. 행운의 숫자 : 15.36

亥 47년생 호수에 배를 띄우나 행운은 반반이다. 59년생 새로운 일이나 문서에 눈물날까 두려우니 행동을 바로 하라. 71년생 과도한 투자만 없으면 결과는 솔솔 하리라. 83년생 오랫동안 기다리던 소식이 동에서 온다. 행운의 숫자 : 09.38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629>

This is on me

제가 살께요

A:that was a good dinner!
B:Yes, it was. OK, **this is on me.**
A:No, no. You treated us last time. Let's go Dutch today.
B:All right.

A:맛있는 저녁이었어요.
B:네, 그래요. 이번에 **제가 살께요.**
A: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사셨잖아요. 오늘은 각각 지불해요.
B:그래 그럼.

This is on me.(이번에는 제가 살께요.)
= This is my treat.
= Be my guest this time. = I'll get this.
treat : (음식을) 대접하다.
go Dutch :비용을 각자 부담하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629>

君も、ニュ-バランス志向なのかい?

당신도 뉴밸런스 지향인가?

A:ねえ、あなた、今日(きょう)、□勤(てんきん) 第(だい)一日目(いちにちめ)でしょ。
B:そうだよ。それがどうかしたの?
A:私(わたし)を紹介(しょうかい)するようなことがあっても、'家□(かない)'とか'女房(にょうぼう)'とかいう 言葉は使わないでよ。
B:**君(きみ)も、ニュ-バランス志向(しこう)なのかい**?じゃあ、'妻(つま)'って言(い)えば、いいのかな?

A:이봐요, 당신 오늘 전근 첫날째죠?
B:그래. 그게 어쨌는데?
A:나를 소개하는 것 같은 일이 있더라도 '家□(かない)'라든가 '女房(にょうぼう)'라는 말은 쓰지 말아요.
B:**당신도 뉴밸런스 지향인가?** 그럼 '妻(つま)'라고 하면 되는 거야?

□勤(てんきん) : 전근
女房(にょうぼう) : 처, 마누라, 아내
志向(しこう) : 지향

〈광주 일본어 문화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376>

牛

거만하다

[illegible]

〈리틀차이나 중국어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한자 이야기 <246>

韓 流 (한 류)

나라이름 한, 흐를 류

한류(韓流)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권에 불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의 물결이다.

한(韓)은 위(韋 : 왕도를 지키는 나라)+한(倝)으로, 국명을 나타낸다. 류(流)는 수(水)+류(㐬 : 출산 때 羊水가 흐르는 모양)로, '흐르다'를 의미한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경계(境界)에서 홍콩을 비롯한 북경, 대만, 베트남 그리고 일본 등지에서 한국의 대중문화(大衆文化)가 큰 관심 속에 사랑을 받고 있다. 드라마, 음악, 패션 등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熱風)은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韓國) 브랜드의 가치(價値)를 향상시키고 있다.

중국에 한류열풍이 불게 된 사회적 요인(要因) 중의 하나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返還)되면서 영화산업(映畵産業)이 사양길을 걷게 되었고, 그 틈을 타서 한국 드라마가 대체문화(代替文化)로 부각하였고, 게다가 서양문화와는 다른 서로 공유하는 공감대, 즉 동아시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일깨운데 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한류현상은 동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에도 확산되고 있고, 이 틈에 상술이 뛰어난 중국인들은 한류 캐릭터를 활용하여 막대한 경제효과를 올리고 있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